

문화재청 공고 제2018-3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12. 2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 번	문 화 재 명	수 량	소유자 (관리자)
1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3권 1첩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
2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垵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	1점	국유 (국립대구박물관)
3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金銅冠)	1점	국유 (국립대구박물관)
4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1점	국유 (국립김해박물관)
5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1건 3점	국유 (국립김해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현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8호(2016.7.7 지정)
- 명 칭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4로 98-69 묘덕사
- 수 량 : 3권 1첩
- 규 격 : 5.5×12.5cm(전곽 9.6×4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袖珍本)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조성연대 : 1425년(세종 7)
- 사 유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밀교의 경전이다. 묘덕사 소장본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내용을 바탕으로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과 사후(死後)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여 관각한 경전임을 알 수 있다.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희소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

- 명 칭 :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 수량 : 1점
- 규격 : 전체 6.3×18.8cm, 고리 길이 7.36cm, 고리 측면 높이 1.84cm
- 재질 : 청동
- 조성연대 : 삼한시대(1세기 후반)
- 사유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2007년 경상북도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일반적으로 호형대구(虎形帶鉤)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모양 띠고리(호형대구)’는 의복 및 칼자루 등에 부착한 장식품으로, 호형대구 혹은 마형대구 등으로 분류되는 동물형 띠고리는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청동기~초기철기 시대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총 8점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파손상태가 심하거나 정식 발굴품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이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유사한 양식의 호형대구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고 뛰어난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이자,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供伴遺物) 등이 모두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高靈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金銅冠)

- 명칭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高靈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金銅冠)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량 : 1점
- 규격 : 전체 높이 19.6cm. 입식 아래폭 11.7cm, 대륜 현재 길이 33.6cm. 대륜 폭 2.7cm.
- 재질 : 금동
- 조성연대 : 가야(5세기)
- 사유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1978년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발굴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함께 출토된 유물에 의해 5세기 대가야시대에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얇은 동판을 두드려 판을 만들고 그 위에 도금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금

동관 형태인 ‘출(出)’자 형식에서 벗어나 중앙의 넓은 판 위에 X자형의 문양을 점선으로 교차해 새긴 매우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가야시대 금동관은 출토 예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금동관은 유물로서 희소가치가 탁월하며, 특히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는 단순·세련된 문양으로 인해 신라 및 백제의 관모(冠帽)에 비해 고유성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5~6세기 대가야의 관모 공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 명 칭 :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63 복천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1.2cm, 폭 10.9cm, 본체폭 5.8cm, 본체 두께 1~1.5mm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가야(4~5세기)
- 사 유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은 1980~1982년 부산 복천동 22호분 발굴 시 출토된 청동방울이다. 고조선시대 의례에 사용된 청동제 방울은 팔두령(八頭鈴), 쌍두령(雙頭鈴) 등 여러 점이 알려져 있으나 삼국시대 유물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은 가야시대까지 관련 신앙과 제례가 지속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4~5세기 가야의 최고 수장급이 사용한 유물로서, 청동을 녹여 속이 빈 상태로 본체와 방울을 주조하였고 둥근 본체의 자루 부분에 나무로 손잡이를 끼웠으며,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여 공예기술사적으로도 우수한 성취를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은 동아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가야시대 의례와 청동 공예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의미가 크다.

□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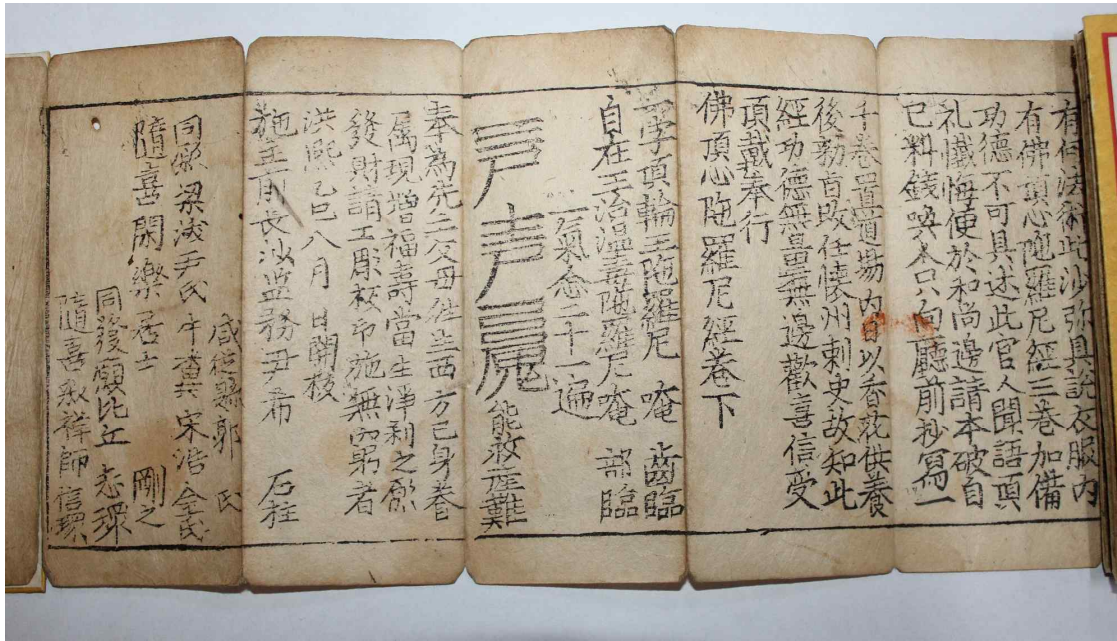
- 명 칭 :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63 복천박물관
- 수 량 : 1건 3점(종장판주 1벌, 경갑 1벌, 종장판갑 1벌)
- 규 격
 - 종장판주(투구) : 전체 높이 34cm, 지름 17.3cm, 머리둘레 63cm
 - 경갑(목가리개) : 앞쪽 높이 11.5cm, 뒤쪽 높이 29.3cm
 - 종장판갑(갑옷) : 전체 높이 43cm, 전체 직선 길이 59cm, 아래둘레 107cm
- 재 질 : 철
- 조성연대 : 가야(4세기)
- 사 유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은 1994~1995년 부산 복천동 38호분 제5차 발굴조사 시 출토된 4세기 철제 갑옷이다. 종장판주[縱長板冑; 투구], 경갑[頸甲; 목가리개], 종장판갑[縱長板甲; 갑옷]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일괄품으로 출토된 사례이다. 출토지가 명확하고 제작시기 역시 뚜렷하여 삼국시대 갑옷의 편년에도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철제갑옷은 재료의 특성상 부식으로 인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동유물은 보존상태가 좋아 가야 철제 갑옷의 구성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철판을 두드려 가늘고 길게 만들었고 부재에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연결해 머리카나 신체의 굴곡에 맞춰 제작하였다. 군데군데 보수해 사용한 흔적이 있어 가야 군사의 생생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은 가야의 철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 갑옷의 제작방식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유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불정심관세음보살대라니경>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